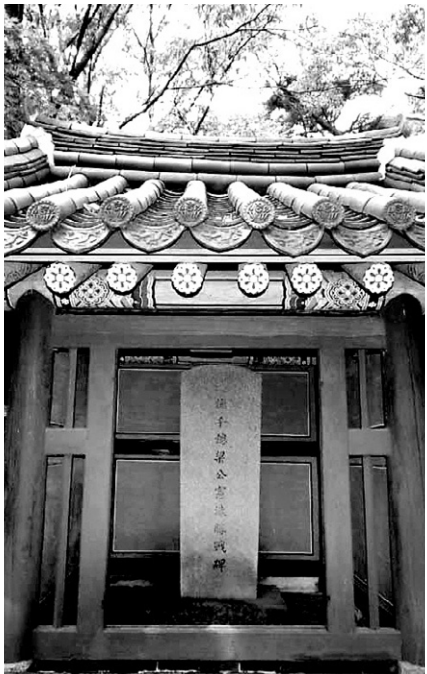


‘변화의 중심’ 전등사를 주목하라 - ③세계 속 문화도량을 꿈꾸다

# ‘열강 침략’ 역사의 아픔 韓-佛 교류행사로 치유한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을 격퇴한 '양현수 장군 승전비(전등사 경내 위치)' (사진 왼쪽)과 전등사 대조루 초입 모습(사진 오른쪽). 역사의 상처인 병인양요는 전등사를 통해 1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치유의 역사로 자리매김될 계획이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을 격퇴한 '양현수 장군 승전비(전등사 경내 위치)' (사진 왼쪽)과 전등사 대조루 초입 모습(사진 오른쪽). 역사의 상처인 병인양요는 전등사를 통해 1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치유의 역사로 자리매김될 계획이다.

1866년 1월 흥선대원군의 척화정책으로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 9명과 한국인 천주교인이 학살된다. 프랑스는 이에 격분해 그해 10월 로즈 제독이 이끄는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를 파병해 강화 진해문 일대를 점거한다.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특히 음식체험 행사는 ▷사찰음식과 와인 그리고 카나페 ▷사찰음식과 프랑스 자연 식단 ▷사찰음식의 응용 및 주민주최 자국음식 전시 등 매일 소주제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도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등사의 역사와 정족산 사교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고 공황권 내의 전등사가 한국문화 홍보에 중요한 관문임을 증명하는 행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속 문화도량"으로서의 전등사의 위상은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이 개최되며, 지난 10월에는 인천 송도에 UN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유치됐기 때문이다.

## 병인양요 130주년 맞아

### 내년 5월 친선행사 추진

### 사찰음식, 군악 연주회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져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

### 세계 속 도량으로 발돋움

강화 전등사는 내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경내 일원에서 한국-프랑스 친선 문화교류행사를 개최한다. 병인양요 130주년을 앞두고 격전지였던 강화도 일원에서 이뤄지는 양국 간 교류 행사는 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 대불 총동문회

### 2012 송년법회

### 15일 방배 열린법당서

### 호흡수행 · 뇌과학 명상법 강좌 개설

### 선림원, 다양한 선 수행법 강연 개최

다양한 선 수행법과 명상을 배우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사 선림원은 12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9시 '간강한 수행자가 걷는 지혜로운길 시즌1·2'를 열고 호흡수행법과 뇌과학과 관련한 명상법을 제시한다. 강좌는 '실천 호흡수행'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 등 두 가지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다. '실천 호흡수행'은 선(禪)의 다양한 수행법을 두루 살피고, 인연이 있는 이에게 깊이 있고 알맞은 수행법을 제시한다. 수강생들은 호흡수행법, 선체조, 건강가공, 걷기명상, 수행문화 등을 배우게 된다. 프

## 대불 총동문회

### 2012 송년법회

### 15일 방배 열린법당서

### 호흡수행 · 뇌과학 명상법 강좌 개설

### 선림원, 다양한 선 수행법 강연 개최

다양한 선 수행법과 명상을 배우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사 선림원은 12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9시 '간강한 수행자가 걷는 지혜로운길 시즌1·2'를 열고 호흡수행법과 뇌과학과 관련한 명상법을 제시한다. 강좌는 '실천 호흡수행'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 등 두 가지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다. '실천 호흡수행'은 선(禪)의 다양한 수행법을 두루 살피고, 인연이 있는 이에게 깊이 있고 알맞은 수행법을 제시한다. 수강생들은 호흡수행법, 선체조, 건강가공, 걷기명상, 수행문화 등을 배우게 된다. 프

# 전용 교육관 개관...자기계발로 이웃 돕는다

불교여성개발원, 조계사 인근 전용교육장 마련

여성분자들의 교육과 수행을 전담하는 전용 교육관이 개관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의 (사)지혜로운여성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지난 해부터 여성광장 건립모금을 시작, 1년 만에 7억 7000여 만원을 모아 서울 조계사 인근 수송빌딩 1층에 전용교육장을 마련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7일 새 교육관에서 개관식을 병행하고 헌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지원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명우 스님(전국비구니회 회장),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장, 김애주 불교여성개발원 전 원장, 이인자 승만경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애주 전 원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 발전했지만 교육과 수행 장소가 없어 늘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러 회원들의 뜻을 모아 2011년 5월 불교여성개발원 건립 기금모금 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연 교육관은 60명, 9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두 개와 사무실로 구성됐다. 김개천 국민대 교수가 실내 디자인을 맡았다.

교육관에서는 여성분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가족애착놀이강사 양성과 노인자살예방 강사를 양성하는 강좌 등이 대표적이며 수료생들은 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식문화와 고유 복식을 배우는 예절강좌와 명상프로그램 등을 개설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승만경연구회, 웰다잉운동본부, 사찰음식문화센터, 불교



불교여성개발원은 11월 27일 서울 중로구 수송동에 여성분자들을 위한 전용 교육관을 개관하고 특별전시를 열었다. 교육관에서는 불자여성을 위한 웰다잉교육, 다문화가정자원봉사교육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진=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여성문화센터 등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센터 교육도 진행한다.

이날 불교여성개발원은 교육관 개관을 기념해 11월 27-29일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의 '자수팔상전-석가세존의 생애' 자선전시도 열었다. 전시회에는 남상민 한국예절문화원 원장이 5년간 직접 수놓은 91폭의 부처님의 생애가 전시됐다.

또한 같은 날 제7대 불교여성개발원장으로 선출된 정경연 원장의 취임식이 한국 불교여성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정경연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내적 성장에 더욱 힘을 쏟아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튼튼한 불교여성개발원을 만들어가겠다"며 "오늘 개관하는 교육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전통문화 세계에 알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전하는 여성분자들을 양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우바새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여성과 남성을 함께 아우르는 여성단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분자의 지혜와 자비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2000년 창립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교계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말없이 보살 도를 실천해왔다"며 "정경연 7대 원장은 지금의 불교여성개발원을 한 차원 높게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단체로 변모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포교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기구인 사찰음식문화센터는 12월 8-9일 목동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20·30대 청년 불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첫째 날 사찰음식 실습,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인 선재 스님의 강의에 이어 둘째날 참선, 행선, 108배염주만들기, 차담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참가회비는 불교여성개발원에 문의하면 된다. (02)722-2101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대불 총동문회

### 2012 송년법회

### 15일 방배 열린법당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윤재철)는 12월 15일 서울 방배동 총동문회 열린법당에서 2012년 송년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법회는 영상으로 '2012 대불원 총동문회 활동 현황'을 통해 한 해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총동문회는 지난 6일 개최된 대불이사회에서 총동문화회관으로 종로 르메르 오피스텔로 결정했으며, 송년법회 후 사무실을 이전한다. (02)720-1963 이나는 기자

## 호흡수행 · 뇌과학 명상법 강좌 개설

### 선림원, 다양한 선 수행법 강연 개최

다양한 선 수행법과 명상을 배우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사 선림원은 12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9시 '간강한 수행자가 걷는 지혜로운길 시즌1·2'를 열고 호흡수행법과 뇌과학과 관련한 명상법을 제시한다.

강좌는 '실천 호흡수행'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 등 두 가지로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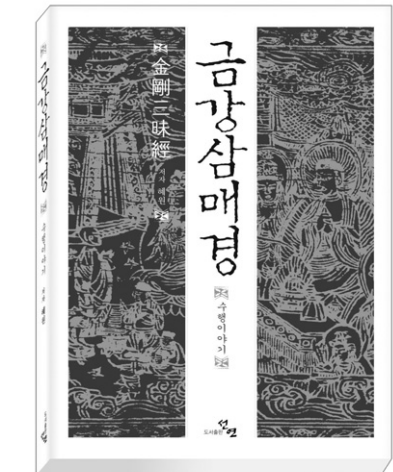
'실천 호흡수행'은 선(禪)의 다양한 수행법을 두루 살피고, 인연이 있는 이에게 깊이 있고 알맞은 수행법을 제시한다. 수강생들은 호흡수행법, 선체조, 건강가공, 걷기명상, 수행문화 등을 배우게 된다. 프

로그래는 △호흡수행의 원리와 자세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두 길 △간강한 수행자의 모습 △중도(中道)를 실천하는 수행자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명상과 행복, 뇌과학을 넘어서'에서는 현대 뇌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마음의 문제와 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뇌를 넘어서 카르마를 바꾸고, 나와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명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선체조, 앉기·서기·걷기 명상을 실시하며 △행복한 뇌지도 만들기 △공포는 실존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뇌파 만들기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02)732-2183 이나는 기자

# 출 간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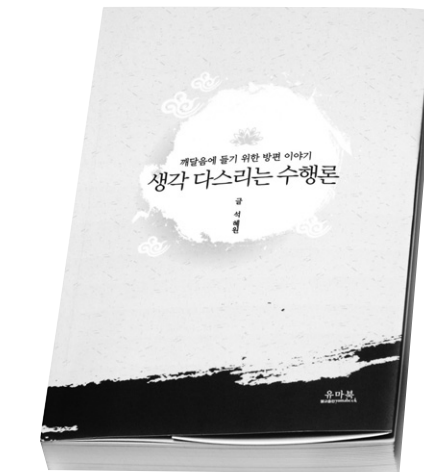
금강삼매경 출판기념법회 불교방송 3층법당 12월 29일 오후 2시 (참석인 책증정)



##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 1,2,3,4 단계 이수 후 공(空)마저 놓는 수행으로 보살경지에 이르게 된다.

보살들이 중생의 궁극증을 대신 묻고 부처님이 답하는 형식이고, 고뇌가 일어날 때 공(空)에 굴에 두라고 하지만, 미혹한 중생은 경계에 빠지니, 방편을 제시하고 공(空)에 들게하고 공(空)마저 놓게 한다.



##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상구보리는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 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 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 한 책이다.

- 1단계 : 들숨날숨 집중
- 2단계 : 들숨날숨 관찰
- 3단계 : 화두참구(견성)
- 4단계 : 공(空)에 들어감

- ▶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수강생 모집
- 1기 접수중 • 인원 : 50명 • 저자 해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대상 :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이수자. 단, 공(空)에 든 분은 예외

- ▶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수강생 모집 【1기 수강 후 하시는 말씀】
- 2기 접수중 • 저자 해원 직강
-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대상 : 사부대중 (50명)
-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 몸이 건강하게 되었어요. · 미래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졌어요.

무아선원 031)721-2148~9 ◆ 첫 강의 입재 ■ 날짜 : 2013년 1월 10일 ■ 기간 : 1년 ■ 도서구매 불서홍판 운주사 02)3672-7181~5 ■ 교재 : 금강삼매경, 생각다스리는 수행론 ■ 강사 : 해원스님 ■ 교보, 영풍 등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